

## 하와의 갈비뼈는 아담보다 많았을까? ❧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다(창세기 2장 22절). 그러나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잃은 셈이다. 그렇다면 아마 아담은 23개의 갈비뼈를 가졌고 이브는 24개의 갈비뼈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갈비뼈 숫자가 동일하게 대부분은 24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물이 태어나 살면서 얻게 되는 형질(획득형질)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았던 적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실험용 쥐의 꼬리를 끊임없이 잘라 보았다. 그러나 꼬리 잘린 쥐의 새끼는 정상적인 꼬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즉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쳐서 사람 몸의 일부가 잘려 나간다고 해도 다리나 손이 없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마다 각자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주신 유전자라는 일종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실제로는 20명 중 7명은 갈비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25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예외적으로 25개의 갈비뼈를 주셨을까?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 숫자는 같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어떻게 여자인 하와를 만드신 걸까? 피조물인 우리로선 그 창조의 기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가능한 일임은 확인할 수 있다. 정상인이라면 사람은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44개는 상염색체라 하여 XX형태로 이루어진 남녀 공통 염색체이다. 문제는 23번째 쌍이다. 여자는 이 염색체가 XX의 조합을 이루는데 반해, 남자는 XY의 조합을 이룬다. 이것이 남녀의 성을 결정한다. 여자는 염색체가 모두 XX형일 뿐 Y의 염색체가 없어 유전학적으로 결코 남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가진 염색체를 모두 지니고 있어 가능하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는 주로 책임과 지도력을 주셨으며 여자는 보다 더 섬세하고 성숙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도자기로 비유하면 여자는 한번 더 가마에 구워낸 하나님의 최신 걸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민족이나 장수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 쪽이 많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로 남자의 돕는 베필이 되게 하셨다. 대개는 돕는 쪽이 더 성숙한 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유전학적으로도 명확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기만 하다.

조덕영/ 목사, 전 한국창조과학회간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